

시화호에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 생긴다

2020년까지 2천460억원 투입...태양광 패널 102.5MW 설치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진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9월 안산시, 한국서부발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화호는 이미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 5기가 들어서 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다.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면 시화호는 조력, 풍력, 태양광 등 3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국 최초 지역이 된다.



안산시, 시화호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 추진

이번 협약에 따라 시화호 일원 1.12km²(약 34만 평) 부지에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2천460억원이 투입돼 102.5MW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발전소)가 생기게 된다. 준공 후에는 연간 약 125G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자본투자자 및 설비 운영을 담당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해당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서부발전은 사업을 위한 자본투자자 및 인프라 구축(설계, 시공 등)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안산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해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이 적용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 체결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서로가 협업함으로써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도 에너지자립 산업특구 지정을 포함한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누구나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안산시 공공자전거

